

‘여성 구청장’ 전략공천 논의… 광주 정치권 ‘술렁’

광주 국회의원 8명 회동서 갑론을박…내년 지방선거판 ‘뜨거운 감자’
북구·광산구·남구 거론 … ‘시스템 공천 흔들’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광주 지역 정치권에서 ‘여성 구청장 전략공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광주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정 선거구 여성 전략지구 지정 여부가 내년 선거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8명은 회동을 갖고 차기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설로만 떠돌았던 ‘기초단 체장 여성 전략공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시당위원장은 비롯해 지역위원장 전원이 참석 한 자리에서 논의된 만큼 향후 민주당 경선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성 정치인 발굴과 배려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를 두고는 이견이 팽팽했다.

가장 먼저 A 국회의원이 광주에서 민주당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여성 구청장 전략공천을 화제로 꺼냈다.

그는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초단체장 배출에는 인색했다’며 ‘이번 선거에서야 말로 과감한 결단을 통해 여성 구청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 국회의원은 ‘인위적인 전략공천은 현장에서 표밭을 일궈온 타 후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꾀했다.

그는 공정 경쟁이야말로 민주당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특정 성별을 위해 선거구를 비워두는 방식은 자칫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항공 참사 1년 … 진상규명 ‘허송세월’ ▶6면

광주~완도 고속도, 남부권 1시간 생활권 ▶11면

광주FC, 코리아컵 우승 좌절 ▶18면



또 광역기초의회 공천의 다른 대안으로 ‘순환 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C 국회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계속 여성 뭉치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갑·을 선거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이번에는 갑, 다음에는 을 지역구로 여성 전략지구를 로테이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역시 해당 지역구 협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부에서는 여성 구청장 전략 공천 논의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특정 지역과 특정 인물들이 거론되는 등 말들이 나돌고 있다.

여성 전략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북구와 광산구, 남구 등이 유력한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북구의 경우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정다은 시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두 의원 모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왔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산구에서는 이귀순 시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역 내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체급을 키워왔으며, 여성 전략구가 지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을 인물 중 하나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남구의 환경과 구의원까지 거론되면서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략공천이라는 제도가 자칫 특정인을 염두에둔 ‘내리꽂기’식 공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뒷받침인 광주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만큼, 경선 없는 전략공천은 사실상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스템 공천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이미 특정 후보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랫동안 지역을 뛰어온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들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폐비감과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순천만 찾아온 흑두루미

7일 순천만 습지 인근 농경지에서 겨울 진객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무리가 먹이 활동을 마친 뒤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rm’, 광주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키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스쿨’ 우선 후보지 GIST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암)과 손잡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2면〉

여기에 ‘광주 AI사관학교’가 국비 지원을 통해 고급 심화 과정으로 전면 개편되고,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실질적 예산까지 확보되면서 광주시가 구상해 온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사

다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광주시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산업통상부, 글로벌 기업 Arm과 함께 가칭 ‘Arm스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간의 면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rm스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대적 약점을 헤쳐나가는 팝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Arm 스쿨 입지와 관련해 GIST를 우선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rm스쿨이 계획대로 내년에 문을 열면 향후 5년 동안 이곳에서 1400명의 글로벌 수준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이 배출될 전망이다. Arm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베테크 기업이 침체 조건에 사용하는 설계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Arm스쿨 유틸 추진과 함께 광주시의 기존 AI 인재 양성 체계도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축구, 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편성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관련기사 18면〉

한국은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

A조에서 만날 유럽 팀은 덴마크, 북미캐나다,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PO에서 결정된다.

23번째 월드컵인 2026년 대회는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11시에 치아오프한다.

2002 한국·일본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복수의 국가에서 열리며 역대 가장 넓은 대륙을 아우르

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돼 치러지는 첫 월드컵이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르고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으로 오르는 한국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인구 대전환 시즌2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전남을 생 각하다

- 전남 사랑서포터즈 100만 명 모집 (관광지·음식점·숙박 할인)
- 전남 관광플랫폼(JN TOUR) (숙박요금 할인, 체험 1+1 혜택)

전남에서 생 활하다

- 산림+해양+마음 치유 전남 웰니스 관광 (명품숲·해양치유·전통사찰·마음치유센터)
-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매월, ‘이달의 휴양마을’ 선정)

전남人과 함께 생 애를 보내다

- 농촌체류형 숙박, 전남형 새뜰하우스 (빈집 활용, 월 1~10만 원 임대)
-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청년바다마을 (주거단지·일자리 연계·정착지원)

월 1천만 생활인구가 머무는 활력 전남

전남 사랑서포터즈



귀농 TIME 유튜브



전남관광플랫폼



전라남도
JeollaNamdo